

논항의 판별기준: 한국어의 동사성 복합어*

홍 기 선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 서 론

복합어는 크게 (1a)의 어근 복합어(root compounds)와 (1b)의 합성적/동사성 복합어(synthetic/verbal compounds) 두 가지로 분류된다.

- (1) a. houseboat, blackbird, overcoat, swearwood, well-formed
- b. truck driver, moth-eaten, fast-acting, pan-fried

이 중 동사성 복합어는 동사의 파생형이 핵(head)이 되고 그 동사의 논항이나 부가어가 비핵(non-head)으로 합성된 단어를 가리키는데, 영어에서는 주로 “-er, -ing, -ed” 등의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가 핵이 된다. 이들 동사성 복합어는 논항구조이론(Argument Structure Theory) 틀 내에서 많이 연구되었는데 동사가 문장에서 서술어로 나타날 때와 복합어에서 핵으로 나타날 때 동일한 논항구조를 유지한다는 가정 때문이다.

영어의 동사성 복합어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입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Roeper and Siegel(1978)과 Lieber(1983) 등은 부가어가 합성된 경우도 포함시켜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반해 Selkirk(1982)나 Grimshaw(1990) 등은 논항이 합성된 경우를 주로 다루고 부가어가 합성된 경우는 예외로 보는 입장이다. 특히 Grimshaw는 논항구조이론으로 동사성 복합어를 설명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동사성 복합어가 논항구조이론에 여러 가지 중요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의 동사성 복합어를 논항구조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주요관심은 어떤 요소들이 비핵으로 실현되는가, 그리고 그들을 논항이란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가 등에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동사성 복합어의 조어원리를 정확히 설명해 보려는 시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논항이란 무엇인가, 논항과 비논항의 구별은 가능한가의 문제에 경험적으로 접근해 보려는 시도이다. 논항이란 개념이 언어학적 설명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그 개념적 정

* 이 연구는 1996년도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언어정보학회와 1999년도 한국언어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도움말을 주신 선생님들, 특히 송철의 선생님, 김진형 선생님, 안상철 선생님, 한은주 선생님과 자료조사를 도와준 박태숙에게 감사한다.

의나 판별기준은 분명하지 않은데, 동사성 복합어처럼 논항과 관련있다고 주장되는 현상들로부터 경험적인 정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본고에서는 자료분석을 통해 동사성 복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논항보다 더 넓은 의미개념이 필요함을 제안하려 한다. 이는 논항이란 개념이 동사성 복합어를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으며 반대로 논항이란 개념을 밝히는데 그 자신이 결정적인 근거도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기존연구들을 비핵의 논항성에 초점을 맞춰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¹⁾ 3장에서는 한국어 자료를 분석하고 4장에서는 그에 기초하여 의미론적 설명을 제시한다.

2. 기존연구 개관

Roeper and Siegel(1978)과 Lieber(1983)는 논항뿐 아니라 부가어가 복합어의 비핵으로 실현된 경우도 포함시키는 대표적 연구이다. 다음과 같은 Lieber의 논항연결원리는 부가어도 의미적인 역할을 부여받아 논항으로 간주되게 하며 여기에서 의미적 논항이란 장소(location), 방법(manner), 동작주(agent), 도구(instrument), 수혜자(beneficiary)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

(2) 논항연결원리

- a. 동사가 보어가 될 수 있는 요소의 자매요소로 나타날 때 가지고 있는 모든 내부논항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 b. 비핵어는 의미적 논항이 되어야 한다. (안상철 1998: 541)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truck driver”와 같이 논항이 비핵이 되는 경우와 “hand-made, nice-looking” 등과 같이 부가어가 비핵이 되는 경우가 동일하게 설명된다. 주어는 외부논항이므로 (2)의 원리에 따라 복합어의 비핵이 될 수 없다.

이에 비해 Selkirk(1982)는 동사성 복합어를 동사의 논항이 비핵인 경우에 제한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

(3) 제 1 투영조건

- 어휘범주 X_i 의 모든 비주어 논항들은 X_i 의 첫 번째 투영 내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안상철 1998: 537)

이는 복합어 내의 모든 비주어 논항은 그 핵을 직접 지배하는 복합어 안에서 만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전상범 1995: 401). 즉, 핵은 모든 비핵 성분들을 성분통제(c-command)해야 하므로 모든 논항은 반드시 복합어 내부에 실현되어야 한다. 예를

1) 동사성 복합어 연구들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비판은 전상범(1995)과 안상철(1998) 참조.

들어 “put”같이 내부논항을 두 개 취하는 동사의 경우 (4)의 어느 쪽도 복합어로 가능하지 않다.

- (4) a. *cat putting (in the well)
- b. *well putting (of cats)

또한 어휘항목의 주어논항은 복합어의 구조 내에서 충족될 수 없다는 주어조건을 독립적으로 제시하여 “children reading”과 같은 복합어가 형성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Grimshaw(1990)도 논항이 비핵이 된 경우만을 다루며 더 나아가 동사성 복합어가 논항구조이론에 중요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본다. Grimshaw는 복합어 구조에 대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첫째, 비핵은 탁월도 위계(Prominence Hierarchy)에서 가장 하위의 것부터 차례대로 복합어에 합성되어야 한다. 논항간의 탁월도 위계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독립적인 층위의 정보에 의해 결정되며, 탁월도 순위를 지켜야 한다고 할 때 이는 (5), (6) 양쪽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하나의 논항이 의미층위와 상적층위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떤 형태의 동사성 복합어도 가능하지 않다.

- (5) 의미역층위(Thematic Dimension)
 행위자(Agent) < 경험자(Experiencer) < 도달점/출발점/장소(Goal/Source/Location) < 대상/피행위자(Theme/Patient)
- (6) 상적층위(Aspectual Dimension)
 사동주(Causer) < 비사동주(Non-Causer) (Grimshaw 1990: 24)

이 조건은 (7), (8)의 문법성의 대비를 설명한다. (7)의 “give”처럼 내부논항이 두 개 -대상과 도달점-인 경우 (7a)는 그 중 탁월도가 낮은 “gift”가 복합어의 비핵으로 합성이 되고 그보다 높은 “children”이 복합어 외부에 남아 있으므로 문법적인데 비해, (7b)는 “children”이 “gifts”보다 먼저 복합어에 합성되었으므로 비문법적이다. (8)에도 동일한 설명이 적용된다.²⁾

- (7) a. gift-giving to children
- b. *children-giving of gifts
- (8) a. flower-arranging in vases
- b. *vase-arranging of flowers (Grimshaw 1990: 14~15)

두 번째 조건은 복합어의 핵은 항상 불포화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첫째 조건과 함께 적용될 때 Selkirk의 주어조건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9a)처럼 외부논항만 하

2) 이 예들은 Selkirk 등의 연구에서는 (a), (b) 모두 비문법적이라고 보았던 예들이다. 그러나 Grimshaw는 두 형태 사이에 문법성의 정도 차이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나 갖는 비능격동사(unergatives)나 (9b)처럼 내부논항만 하나 갖는 비대격동사(unaccusatives) 모두 불포화 조건을 여기므로 그런 동사들은 동사성 복합어를 형성할 수 없다.

- (9) a. *girl-swimming, *kid-eating
b. *leaf-falling, *glass-breaking

한국어의 동사성 복합어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Ahn 1985, H.-Y. Kim 1990, 송철의 1992, 김진형 1992, 시정곤 1995, Cho 1994, 안상철 1998 등), 대체로 탈동사 접사인 '-이, 음, 기' 등이 첨가된 N-V-i 유형으로 핵이 장소나 방법 등의 사격 논항도 취할 수 있는 합성구조라고 보며, 음운 형태론적인 관점에서 그 구조의 내부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데에 논의의 초점이 주어져 왔다. 어근 복합어와 동사성 복합어의 가장 큰 차이는 (10)의 대비가 보이는 것처럼 후자에는 경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Chung 1980, Y.-S. Kim 1985).

- (10) a. 돈벌이[돈뻘이]
b. 밤샘[*밤쌈], 귀걸이[*귀겘이], 고기잡이[*고기짹이]

본고의 논의와 관련되는 주장들을 살펴보면 Cho(1994)는 한국어의 동사성 복합어를 비핵이 논항인 합성구조라고 정의한다. 그런 정의는 핵이 동사의 파생형인 경우 이외에도 'N-하다' 동사를 이루는 소위 동사성 명사(verbal nouns)인 (11)과 같은 단어들을 논의에 포함시키게 된다.³⁾

- (11) 불조심, 물장사, 불구경, 기분전환, 밤도독질, 불장난

(12)와 같은 복합어들은 핵과 비핵 간에 논항관계가 성립되나 경음화현상을 보이는데 Cho(1994)는 이들을 동사성복합어에서 어근복합어로 어휘화된 경우라고 본다.

- (12) 돈벌이[돈뻘이], 물끓이[물끓이, 물끓이], 공던지기[공던지기, 공편지기], 글공부[글공부, 글꽁부]

또한 한국어에는 Grimshaw가 제시한 의미역 층위를 위반하는 예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Cho 1994: 40, 주석 8). (13)의 예들은 모두 피행위자 의미역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분들이 비핵으로 실현된 경우이다.

3) Cho(1994)는 “몸부림, 칼부림, 해바라기, 문열이, 길잡이, X-자 돌림” 등의 예는 비핵과 핵 간의 술어관계가 투명하게(transparently) 드러나지 않는 단어들로 이들의 핵은 사전에 종속 명사(bound noun)로 수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런 의미의 불투명성은 비핵과 핵 간의 관계가 다소 은유적이거나(예: 몸부림), 복합어 전체로서의 의미가 은유적인(예: 문열이) 데서 오는 효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은유적인 예들도 같이 다루므로 이들도 자료에 포함시켰다.

(13) 장조립, 소금구이, 소금절이, 가을견이, 칼싸움, 손잡이

안상철(1998)은 주어조건 대신 행위자 불가제약(No Agent Constraint)을 제안한다. 몇몇 연구(Cho 1994, 시정곤 1995)에서 지적된 대로 한국어는 “해돋이, 읊돋이” 등 표면구조의 주어가 합성화되는 예를 보여 주어가 동사성 복합어의 비핵이 될 수 없다는 주어조건을 위반한다. 행위자 불가제약은 이들 비대격 동사(unaccusatives)가 핵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며 동시에 비능격 동사(nergatives)의 주어 즉, 행위자만 한국어에서 동사성 복합어의 핵이 될 수 없다는 예측을 한다. 또한 안상철은 의미역 층위에 따른 합성 순서가 한국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대신 다음과 같은 제약을 제안한다(안상철 1998: 565).

(14) 단일논항 표시제약(Single Argument Specification)

N-V-i 동사성 복합어에 사용된 동사 어간에는 단 하나의 내부논항만이 표시된다.

이 제약은 예를 들어 “잡이”라는 형태에 대해 “고기잡이”처럼 피행위자가 합성된 경우도 가능하고 “손잡이”처럼 도구가 합성된 예도 가능하나 두 가지 의미역이 동시에 합성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일반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내부논항이 표시될 때 내부논항들 간에 의미역 층위에 따르는 순서를 가정하지 않으므로 “고기잡이”와 “손잡이” 두 가지 복합어가 다 가능하며 이 외에 다른 의미역이 합성된 복합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첫 돌때 무엇을 잡는 유아’를 의미하는 “돌잡이”의 경우 핵이 시간이라는 의미역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내부논항”은 Lieber의 정의처럼 부가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어 자료를 분석하면서 동사성 복합어와 논항구조와의 관계를 가장 밀접한 것으로 분석한 Grimshaw(1990)의 주장이 한국어에 적용되는가를 대체로 살펴보겠다. 그의 주장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5) a. 비논항이 비핵으로 합성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b. 동사성 복합어는 항상 불포화(unsaturated)된다.

c. 비핵어로 실현되는 순서는 의미역 위계(thematic hierarchy)에 따른다.

3. 한국어 자료 분석

3.1. 자료 수집의 원칙

한국어의 동사성 복합어의 예를 수집하는데 있어 우선 기존 연구들에 언급된 예들

을 포함시키고 금성판 국어대사전(김민수, 고영근, 임홍빈, 이승재 편)에 수록된 예를 모두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작업이 수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누락된 예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어휘를 선택할 때 첫째, 우선 “N-V-이/기/음” 형태의 어휘들을 모두 수집하였다. 논항구조란 측면에서 보면 Cho(1994)가 제안한 대로 경동사구문을 이루는 동사성 명사도 함께 다루어야 하겠으나 그런 예를 모두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 우선 “N-V-이/기/음” 형태로 제한시켰다. 둘째, “N-V-이/기/음” 형태의 어휘들로부터 어근 복합어를 제외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기존 연구들의 주장에 따라 (i) 핵이 독립적인 어휘로 사전에 등재된 경우와(부록1), (ii) 비핵이 공명음(sonorants)으로 끝나는 데도 비핵과 핵 간에 예외적으로 경음화가 적용되는 예들을 어근 복합어로 보았다(부록2).⁴⁾ 이 중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어휘는 <부록2>에 밑줄로 표시된 7개이다. 따라서 총 498개의 “N-V-이/기/음” 형태의 자료에서 독립적 핵을 갖는 93개와 경음화가 일어나는 12개를 제외하고 이 중 겹치는 7개를 고려하면 400개가 본고의 연구 대상인 동사성 복합어로 남게 된다(부록 3). 셋째, (16-18)에 부분적으로 예시된 것처럼 비핵이 명사가 아닌 동사성 복합어들도 많이 발견된다. 의미상으로는 이들을 방식(manner)이나 양태(mode)를 의미하는 명사형 비핵들과 같이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아직 이런 구조에 대한 연구가 깊지 않아 일단 논의에서 제외시켰다.

(16) 부정사형

건어차기, 내려지르기, 내리받이, 더부살이, 돌려나기, 돌려짓기, 뛰어들기, 이어갈이, 후려차기, 후벼내기

(17) 부사

가로닫이, 가로짜기, 곧추뛰기, 길게끊기, 깎둑썰기, 나란히가기, 내리닫이, 높이뛰기, 달짝배지기, 두루말이, 두루치기, 마구잡이, 마주나기, 마주보기, 마주잡이, 멀리보기, 세로짜기, 앞쪽빼기, 앞쪽썰기, 어긋나기, 어긋보기, 주춤서기, 제살이, 지름뜨기, 총총들이, 후살이

(18) 형용사

곧은박이, 곧은불림, 돈을새김, 판살이, 쉰내기, 여린내기, 원안걸이, 자진모리

넷째, 영어나 한국어에 대한 연구에서 대체로 모든 연구들이 동의하는 바는 비핵은

4) 경음화에 대한 판단은 개인별로 매우 다른 듯하다. <부록 2>는 대체로 안상철 선생님의 판단에 따른 것인데 한은주 선생님은 <부록 2>에 수록된 단어들 중 “구두담이, 돈벌이, 발걸음”만 경음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한은주 선생님은 12단어 중 “구두담이, 공던지기, 창던지기, 줄당기기, 멀치볶음, 북어조림, 생선조림” 등 7단어는 복합어에서뿐만 아니라 핵만 독립적으로 쓰일 때에도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어두에서 경음화를 시키는 최근 경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던지기”와 “원반던지기”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단어의 빈도나 음절 수 등도 경음화에 관여하는 듯하다.

하나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의 예들은 작은 수이기는 하나 비핵이 두 개 실현된 경우로 보여지며, 이 때 두 비핵간의 의미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 (19) a. 제꽃 가루받이, 제꽃 정받이 (출발점-피행위자)
- b. 가슴 숨쉬기, 배 숨쉬기 (도구-피행위자)
- c. 제자리 넓이뛰기, 제자리 높이뛰기, 제자리 멀리뛰기 (장소-부사)

3.2. 비핵의 의미에 따른 분류

위의 원리에 따라 수집한 총 400개의 자료를 비핵의 의미에 따라 분류하는데 그 목적은 (20)에 주어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

- (20) a. 어떤 의미적 요소들이 합성되는가?
- b. 합성될 수 없는 의미요소는 무엇인가?
- c. 합성되는 요소들 간에 의미에 따른 순서가 있는가?

이들 질문은 (15)의 주장을 시험하는 것으로 합성되는 혹은 합성되지 않는 요소들이 논항성(argumenthood)에 영향을 받는가, 행위자 의미역은 합성될 수 없는가, 또 의미역 위계의 영향을 찾을 수 있는가 등을 보기 위함이다.

<부록 3>에 표시한 대로 동사성 복합어의 비핵들을 의미에 따라 (21)과 같이 분류하였다.⁵⁾ (21a)의 논항들은 동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한다고 생각되는 의미적 참여자들이다. (21b)에 열거된 요소들은 동사가 그리는 행위와 밀접히 관련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논항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들이다. 시간(Time), 자격(Status), 도구/재료(Instrument/Material) 등은 Lieber(1983)가 “의미적 논항”이라 칭하였듯이 의미역을 논할 때 자주 언급되는 부가어이며, 장소 2(Location 2)도 장소1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걸다”라는 동사는 “X가 Y를 Z에 특정한 방식으로 위치하게 하다”의 의미로 행위자, 대상, 장소1이라는 세 개의 논항을 취한다고 분석되어진다. 이에 비해 “받다”라는 동사는 “Y가 Z로부터 X로 위치를 이동하다”의 의미로 이해되며 이때 어떤 장소, 혹은 통로로 그런 위치 이동이 일어났는가는 이 동사의 의미에 필수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따라서 대체로 도달점, 대상, 출발점의 세 개의 논항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실제 동사성 복합어 자료를 보면 이런 장소 명사들이 비핵으로 합성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동사와의 의미관계가 더 불투명한 요소들도 비핵으로 실현이 되는데 양태(Mode), 방식(Manner), 단위(Unit), 관련성(Relevance) 등을 들 수 있다. 동사가 그리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소리, 모습 등을 표현하는 명사들과 사건의 수, 양, 정도를 표현하는 명사들을 각기 양태와 방식으로 분류하였으며, 사

5) 사전에 주어진 뜻에 따라 의미를 정확히 분류하려 노력하였으나 “소용돌이, 살판땀” 등은 의미를 추측할 수 없어 제외시켰다.

건이 어떤 단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가를 표현하는 단위 명사들도 비핵으로 실현이 된다. 더 나아가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 “다듬이살이 오르도록 홍두깨에 감고 짓두드려 하는 다듬이”를 의미하는 “살다듬이”에서 “살”이 다듬질하는 사건에 갖는 의미관계를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예들을 관련성이란 항목에 모아 놓았다.

(21) a. 논항

피행위자 : 기름주기, 고기잡이, 집짓기

장 소 1 : 객지살이, 귀걸이, 국말이

출 발 점 : 발걸이, 뼈뜯이(소의 뼈에서 뜯어낸 매우 질긴 고기), 키내림
(키에서 곡식을)

도 달 점 : 사색벼름, 제구멍박이, 집들이

대 상 : 벼락치기, 배고픔, 피돌기

행 위 자 : 까막눈잡이, 술래잡기, 용오름(바다에서 생기는 희오리 바람)

b. 행위관련 참여자

시간(시점, 지속기간, 빈도) : 가을걷이, 봄갈이, 여러해살이

자 격 : 칩살이

도구/재료: 소금절이, 손잡이, 주먹다짐

장 소 2 : 개구멍받이, 사이짓기, 소반다듬이

양태(모습, 소리) : 가위막기, 반달썰기, 뽕튀기

방 식 : 곱박이, 두벌쉴음, 어렵재기

단 위 : 달(12달)불이, 달(12달)풀이, 줄뿌림

관 련 성 : 샅메기, 살다듬이(다듬이살), 성주(집의 신)풀이

<부록 3>의 자료에 근거하여 (20)의 질문들을 살펴보면 첫째, (21)에 분류된 다양한 의미들이 비핵으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둘째, 합성될 수 없는 의미요소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이 대체로 동의해 왔던 행위자 비합성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료의 수가 적어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으나 “술래잡기” 등의 예를 보면 한국어에서 행위자가 비핵으로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다.⁶⁾ 또한 대상과 행위자가 합성된 예들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Grimshaw가 영어에서 주장한

6) 안상철 선생님은 “술래잡기, 까막잡이”의 경우 “술래가 될 사람을 잡는다”는 해석과 “용오름”의 경우 “용처럼 오른다”는 비행위자적 해석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김진형 선생님은 최남선의 시에 “아이들보이(아이들이 보다)”라는 행위자/경험자 논항이 합성된 예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이와 관련하여 신선경 선생님은 구합성어 중에 “어사출두(하다)”식의 표현이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런 예들 자체가 복합어는 아니나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Cho(1994)의 주장대로 “N-하다” 동사로부터 나온 동사성 복합어를 연구에 포함시킨다면 행위자가 합성된 경우를 더 많이 찾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하다” 동사는 대체적으로 행위를 취하기 때문이다

불포화 원리가 한국어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질문인 합성 순서에 대해 Grimshaw (1990: 24)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위계에 근거하여 의미역 위계의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22) 의미역 위계

행위자 < 경험자 < 도달점/출발점/장소1 < 피행위자/대상

우선 자료의 절대적 수만을 고려한다면 피행위자가 비핵으로 실현된 어휘가 239개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피행위자를 제외하고 보면 다른 의미 요소들 간에 양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23) a. 논 항 :	피행위자	239	장 소 1	25	출 발 점	5
	도 달 점	3	대 상	18	행 위 자	3
b. 비논항 :	시 간	15	자 격	5	도 구	18
	장 소 2	18	방 식	14	양 태	8
	단 위	7	관 련 성	15		

논항들 간에는 (22)와 같은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경험자가 비핵인 합성어는 없으나 다른 세 집단 간에는 (24)와 같은 숫적인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미역 위계에 따른 효과를 인정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피행위자/대상 집단과 다른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세 집단 간의 차이라기보다는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며, 둘째, 피행위자와 대상 간에도 숫적인 차이가 너무 커서 두 의미역을 함께 묶는 것이 무리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비논항들을 어떻게 위계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24) 행위자 < 도달점/출발점/장소1 < 피행위자/대상

3 33 257

그러나 좀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교해야 할 것은 각 의미역 간의 절대적 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의미역의 정의 상 장소1, 출발점, 도달점 등은 대상, 행위자, 피행위자 등이 일단 전제되고 그들이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를 명시하는 동사와만 쓰이는 것이므로 후자보다 절대적인 수가 적을 수 밖에 없다. 비논항 중에서 도구, 방식, 양태 등도 같은 논리에 의해 그 수가 적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타동사만 취할 수 있는 피행위자가 비핵으로 실현된 수에 비해 그보다 더 넓은 동사류가 취할 수 있는 행위자가 실현된 수는 상대적으로 보면 훨씬 더 적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위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 동사가 여러 의미역을 취할 때 그 중 어떤 의미역이 선택되었는가, 즉 의미역 간의 경쟁에서 어떤 의미역이 우선적으로 선택되었는가를 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의 관심은 특히 피행위자와 다른 의미역 간의 경쟁인데, 이를 살펴보기 위해 각 의미역을 취하는 핵들을 논항을 세 개

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하고 전자에 해당되는 어휘들을 <부록3>에 밑줄로 표시하였다.

논항의 수를 셀 때 몇 가지 원칙에 따랐는데 첫째, 같은 뜻의 어휘라도 논항 수에 차이를 두었다. (25a)의 예처럼 핵이 “받이”인 어휘들 중 “빛받이” 처럼 출발점을 분명하게 요구하는 경우와 “이슬받이”처럼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논항 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25b)에 예시된 어휘들은 소위 소유자 인상 구문(Possessor Ascension Construction)이나 대격 중출 구문(Multiple Accusative Construction)에 나오는 예들이다. 즉, “떡살잡이”는 “X-의 떡살을 잡다”나 “X-를 떡살을 잡다”와 같은 구문과 관련되는 어휘인데 이런 경우들은 논항을 세 개 취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X”에 해당되는 부분이 격에 관계없이 “떡살”과 같은 의미역을 받을 것이다. 셋째, 도구/재료의 경우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25c)와 같은 예들은 특정한 도구/재료와 늘 연관되나 (25d)와 같은 예들은 특정한 도구/재료 없이도 가능한 사건이다. 본고에서는 전자는 도구/재료 논항을 취하는 것으로, 후자는 취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 (25) a. 빛받이, 이슬받이
 b. 떡살잡이, 말막음, 모양닭기, 앞가림
 c. 걸절이, 파절이, 풀베기
 d. 귀쑤시개, 게잡이, 먼지털이

위의 원칙들에 따라 논항구조를 분석한 결과가 (26)과 같다. “X, Y”는 구체적인 의미역을 밝힐 필요가 없는 의미성분들을 가리키며 “피, 장, 출”등은 각 의미역 명칭의 첫 글자만을 줄여 표기한 것이다.

(26) 피행위자	239	<X 피>	193	<X Y 피>	46
장 소 1	25	<X 장>	15	<X 장 피>	10
출 발 점	5			<X 출 피>	5
도 달 점	3	<X 도>	1	<X 도 피>	2
대 상	18	<대>	18		
행 위 자	3	<행 X>	3		
시 간	15	<X 시>	5	<X 시 피>	10
자 격	5	<X 자>	5		
도구/재료	18	<X 도>	2	<X 도 피>	16
장 소 2	18	<X 장>	2	<X 장 피>	16
양 태	8	<X 양>	2	<X 양 피>	6
방 식	14			<X 방 피>	14
단 위	7	<X 단>	1	<X 단 피>	6
관 련 성	15	<X 관>	6	<X 관 피>	9

총 400개 중 행위자가 다른 의미역을 앞서 복합어의 비핵이 된 예는 단 3개이다. 논항을 두 개 취하는 동사는 모두 특정 의미역이 행위자나 대상보다 앞서 합성된 경우이므로 행위자나 대상이 복합어의 비핵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일반화 외에 더 제시하는 바가 없다. 논항을 세 개 취하는 동사에 초점을 맞춰 피행위자와 다른 의미역 간의 관계를 보면 (27a, b)와 같다.

- (27) a. 피행위자 < 다른 의미역 46
- b. 다른 의미역 < 피행위자 94

이 중 피행위자가 다른 의미역을 앞서는 경우를 의미역에 따라 세분해 보면 (28)과 같고 (26)과 (28)의 결과를 숫적으로 비교한 것이 (29)이다. (29)를 보면 대체로 피행위자가 다른 의미역보다 조금씩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 도구/재료의 경우에는 오히려 도구/재료가 피행위자보다 복합어에 합성되는 예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28) a. 장 소 1 : 잣걸이, 녕마주이, 대못박이, 모심기, 모자걸이, 발걸이, 불놓이, 뿌리꽃이, 삼지놓이, 양수걸이, 옷걸이, 쥐불놓이, 짐실이, 쪽매 붙임, 책꽂이, 팔걸이 (16)
- b. 출 발 점 : 마개뽑기, 못뽑이, 발뺨, 빗받이, 씨받이, 알뜰기, 알뜰이, 응석 받이, 이삭줍기, 이슬털이 (10)
- c. 도 달 점 : 거름주기, 원반던지기, 빗물어, 신문팔이, 알넣기, 조옮김, 품팔이 (7)
- d. 도구/재료: 걸싸개, 걸절이, 눈가림, 파절이, 풀베기 (5)
- e. 상 대⁷⁾ : 귀견쭈, 각지걸이, 눈맞춤, 무릎맞춤, 본보기, 자리바꿈, 조바꿈, 짝짓기 (8)

(29) a. 피행위자 < 장 소 1	16	장 소 1 < 피행위자	10
b. 피행위자 < 출 발 점	10	출 발 점 < 피행위자	5
c. 피행위자 < 도 달 점	7	도 달 점 < 피행위자	2
d. 피행위자 < 도구/재료	5	도구/재료 < 피행위자	17
e. 피행위자 < 상 대	8	상 대 < 피행위자	0

이상의 자료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피행위자와 여타 의미역 전체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나 피행위자와 특정 의미역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타 의미역에는 비논항도 포함된다. 둘째, 행위자와 피행위자를 제외한 여타

7) 피행위자가 다른 의미역을 앞서는 경우에 다른 의미역이 “X-와” 같이 “상대”를 의미하는 예들을 찾을 수 있다. “상대”는 일반적으로 의미역 위계에서 다루어지지 않는으나, 가능한 의미역이라고 생각된다.

의미역 상호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은 행위자가 복합어의 비핵으로 합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으로 의미역 위계가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은 위계일 것이다.

(30) 행위자 < 다른 의미역

왜 행위자가 복합어 형성과 관련하여 의미역들 가운데 특별한 위치를 점하는가는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통사이론들에서는 의미역의 내재적 특성이나 외부논항 등의 개념에 의해 행위자의 특수성을 표현하고 있으나 그를 넘어서 보다 근원적이고 인지적인 설명을 찾아보면 흥미로울 것이다.

4. 동사의 어휘 의미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 결과가 함축하는 바를 생각해 보자. 기존의 연구들이 추구해 왔던 바는 복합어 형성과 관련하여 동사를 유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즉, 동사들을 각기 취하는 논항의 의미역에 따라 몇가지 종류로 분류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부록 3>의 자료는 동사에 대한 이런 단순한 유형화가 가능하며 또한 유의미한가를 재고하게 할 수 있다. 첫째, 동일한 논항구조를 공유하는 동사들이 다른 유형의 복합어를 형성할 수 있다. (31a)의 동사들은 행위자, 피행위자, 도달점 세 개의 의미역을 취하나 이미 (29)에서 보았듯이 각기 다른 의미역을 복합어의 비핵으로 택한다. (31b)와 (31c)의 동사들도 마찬가지이다.

- (31) a. 거름주기(피행위자), 사색벼름(도달점)
 b. 파절이(피행위자), 소금구이(도구/재료)
 c. 가을뿌림(시간), 두벌같이(방식)

둘째, 더 나아가 하나의 동사가 다양한 복합어 형성을 보이기도 한다. “살이”의 경우 장소1을 취하는 어휘가 13개, 시간이 4개, 자격이 5개, 관련성이 4개로 다양한 의미를 골고루 취함을 볼 수 있다.

- (32) a. 살 이 : 장소1(괘지살이) 13, 시간(겨우살이) 4, 자격(머슴살이) 5, 관련성(귀양살이) 4
 b. 잡이/잡기 : 피행위자(칼잡이) 31, 행위자(까막잡이) 2, 도구/재료(손잡이) 3, 장소2(앞잡이) 1, 부사(마주잡이) 1
 c. 단 이 : 방식(반단이) 1, 양태(벼락단이) 1, 부사(가로단이) 2
 d. 썰 기 : 양태(반달썰기) 1, 부사(깎둑썰기) 2

이 두 가지 관점은 적어도 동사성 복합어 형성과 관련하여서는 의미역에 따른 동사의 유형화가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동사성 복합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선 문장에서 동사와 명사구 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삼돌이가 살았다”와 “삼돌이는 어렸을 때 타항에서 3년 동안 머슴으로 샳을 받으며 고생스럽게 살았다”라는 두 문장을 비교할 때 후자는 전자가 그리는 사건을 여러 개의 수식어구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이론들에서는 그들 중 “삼돌이”라는 논항만을 중요시하나 다른 의미요소들—전체 사건이 일어난 시간, 장소, 사건이 지속된 구체적 시간, 자격 등—이 그보다 의미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동사성 복합어는 이런 의미요소들 중 하나를 동사와 아예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 동사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어느 요소가 합성되는가가 본고의 관심거리였는데 조사결과는 논항 뿐 아니라 위의 문장에서 나온 어느 요소도 비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타항살이, 머슴살이, 고생살이” 등이 직접적 예이며 “겨우살이, 여러해살이, 샳(팔이)” 등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단어들이다.

이런 의미의 구체화란 관점에서 볼 때 가능한 추측은 의미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또 기여하는 바가 큰 요소들이 합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논항/비논항의 구별과 다르다. 예를 들어 “썰다”라는 동사의 경우 “어머니가 부엌에서 무를 반달 모양으로 알파카게 칼로 썬다”와 같은 문장이 가능하다. “썰다”라는 동사는 이미 “식품을 특별한 종류의 연장으로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의미를 구체화할 때 피행위자인 “무엇”을 제한시키기에는 너무 종류가 많고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무썰기” 같은 단어는 대체로 합성되지 않을 것이나 예를 들어 “떡국떡 썰기 대회, 무 300개 썰기”처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합성어는 가능할 것이다. “부엌썰기, 칼썰기”도 비핵이 의미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적으므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해 “반달썰기, 알파카썰기, 채썰기”처럼 썬는 방식을 묘사하는 것은 그 종류가 한정되어 있으면서도 새로운 의미를 첨가하므로 합성어 형성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설명은 Pustejovsky(1995: 63)의 논항 분류와 비교될 수 있다.

- (33) a. 참논항(true arguments) : John arrived late.
- b. 무표지 논항(default argument) : John built the house out of bricks.
- c. 그림자 논항(shadow argument) : Mary buttered her toast *with butter.
- d. 참부가어(true adjuncts) : Mary drove down to NY on Tuesday.

논항과 비논항을 구분한다면 (33a, b, c)와 (33d)로 양분되겠지만, 동사성 복합어에서 중요한 것은 (33a, d)와 (33b, c)의 구분이다. 전자의 요소들은 합성이 가능하고 후자의 요소들은 가능하지 않은데 이미 그 의미가 동사의 의미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엌썰기, 칼썰기” 등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이에 기인한다.⁸⁾ 전자에 속하

8) 이예식 선생님이 이 점을 지적하였다.

는 의미요소들도 같은 정도로 합성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의미일수록 합성이 잘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서 왜 “썰다”가 “살다”보다 합성되는 방식이 훨씬 제한적인가, 또 비슷한 의미의 동사들이 왜 (31)처럼 다른 방식으로 합성어화하는가 등은 흥미로운 문제거리이다. 또 “썰다”가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도 양태를 묘사하는 표현을 합성화한다는 사실이 “썰다”의 의미구조에서 양태라는 요소가 가장 핵심에 있음을 의미하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설명에 의해 동사의 유형화가 가능한가, 아니면 합성화는 완전히 어휘별로 이루어지는 어휘 개별적 현상으로 동사의 유형화 자체가 불가능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진형 (1992) “영어와 국어의 어휘형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송철의 (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국어학총서 18), 서울: 태학사.
 시정곤 (1995) “어휘결합과 의미해석,” 언어 20-1, 97-131.
 안상철 (1998) 형태론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105), 서울: 민음사.
 전상범 (1995) 형태론, 서울: 한국문화사.
 Ahn, S.-C. (1985) *The Interplay of Phonology and Morphology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Cho, Y. (1994) Verbal Compounds in Korean, *Theoretical Issues in Korean Linguistics*, ed. by Y. Kim-Renaud, 29-44, Stanford: CSLI.
 Chung, K. (1980) *Neutralization in Korean: A Functional View*,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Grimshaw, J. (1990)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The MIT Press.
 Kim, H.-Y. (1990) *Voicing and Tensification in Korean: A Multi-face Approac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Kim, Y.-S. (1985) *Aspects of Korean Morphology*,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Lieber, R. (1983) Argument Linking and Compounding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14, 251-286.
 Pustejovsky (1995)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The MIT Press.
 Roeper, T. and D. Siegel (1978) A Lexical Transformation for Verbal Compounds, *Linguistic Inquiry* 9, 199-260.
 Selkirk, E. (1982) *The Syntax of Words*, Cambridge: The MIT Press.

<부록 1>

핵이 자립어인 어휘들

갓싸개, 계구이, 걸누르기, 고기구이, 고치고르기, 공간이음, 공던지기, 굴부침, 그림그리기, 꽃묶음, 꽃받침, 단거리달리기, 달갈찜, 달갈부침, 닭볶음, 돈별이, 멸치볶음, 목조르기, 북어무침, 북어조림, 샷별이, 생선구이, 생선조림, 안잠자기, 원반던지기, 자가사리지집이, 장거리달리기, 장독받침, 제육볶음, 제육뼈조림, 제육구이, 제육무침, 제육조림, 제육지집이, 창던지기, 책싸개, 초읽기, 김쌈, 책받침, 개죽음, 게걸음, 땅울림, 살걸음, 개싸움, 닭싸움, 부부싸움, 패싸움, 낫놀이, 걸웃음, 뒤구르기, 들놀이, 밭그림, 사랑놀이, 제자리걸음, 주심이음, 통조림, 각시놀이, 굶증놀이, 사자놀이, 공기놀이, 눈싸움, 돈놀이, 말다툼, 무릎걸음, 물놀이, 빗놀이, 소금구이, 소꿉놀이, 숯불구이, 썰매놀이, 은축이음, 인형놀이, 장조림, 주먹묵음, 쥐불놀이, 촛불놀이, 칼싸움, 햇불싸움, 어림셈, 예사낫춤, 예사놀이, 사랑싸움, 뺨내기, 화장걸음, 꽃놀이, 군대놀이, 기차놀이, 단풍놀이, 답고놀이, 병원놀이, 보싸움, 상점놀이, 화양누르미 (93)

<부록 2>

경음화가 적용되는 어휘들

공던지기, 구두담이, 돈별이, 멸치볶음, 북어조림, 생선조림, 줄당기기(줄다리기), 창던지기, 물꿍이, 밭걸음, 손더듬이, 살다듬이(다듬이살이 오르도록) (12)

<부록 3>

한국어 동사성 복합어

I. 논 항

1. 피행위자

가보잡기(놀이), 가슴앓이, 감잡이, 감접이, 갓걸이, 갓모자같이, 거름주기, 건공잡이(반공중: 허세를 부리는 사람), 걸래받이, 걸음걸이, 걸보기, 걸싸개, 걸절이, 게잡이, 겨울맞이, 격뜨기, 경마잡이, 결순치기, 고기잡이, 고래잡이, 고치가름, 고치켜기, 고치틀기, 구슬치기, 굽같이, 귀견준, 귀쭈시개, 귀앓이, 귀알잡이(붓), 귀접이, 글짓기, 금박이, 길잡이, 김매기, 깎지걸이, 꼬리치기, 꼭뒤잡이, 꽃꽂이, 꽃달임, 꽃덮이, 꽃맞이, 꽃샘, 끝맺음, 나무타기, 나비내기, 날치구이, 날뽕팔이, 낫가림, 냉가슴앓이, 녀동내기(웃놀이의 말), 녀동치기, 녀마주이, 논갈이, 뚝다리밟기, 누에치기, 눈가림, 눈깜작이, 눈맞춤,

다리밟이, 다리휘두르기, 달집태우기, 대못박이, 도둑잡기, 돈치기, 돌쌓기, 뒤빨치기, 뒤차기, 뒤채잡이, 딱지치기, 땀받이, 때밀이, 떡볶이, 똥받기, 똥싸개, 똥뛰기, 뚝대김, 마개뽑이, 마음가짐, 말더듬이, 말막음, 말몰음, 매장치기, 떡살잡이, 먼산바라기, 먼지털이, 모내기, 모심기, 모양닦기, 모자걸이, 목놀림, 목매기, 목침돌림, 몸가짐, 몸놀림, 몸부림, 몸풀기, 몸통막기, 몸통비틀기, 못뽑이, 무릎꿇림, 무릎맞춤, 무릎치기, 무말랭이, 문열이, 물갈이, 물받이, 바람막이, 바람잡이, 바잡이, 발걸이, 발돋움, 발묵음, 발뺨, 밤샘, 밥벌이, 발갈이, 발다리걸기, 배얹이, 벌레잡이, 보리누름, 보막이, 보물찾기, 본보기, 봄맞이, 북잡이, 북편치기, 불놀이, 빛물, 빛받이, 뿌리꽃이, 뿌리나눔, 뿌리돌리기, 산돌이(산에 익숙한 사람), 살림살이, 살잡이, 살풀이, 삼잡이, 삼지놓이(세 손가락), 상사말이(오목한 흠), 샘물받이, 서캐홀이, 성주받이(집의 신), 소고잡이, 소매치기, 소몰이, 속얹이, 손톱깎이, 송편빚기, 숨쉬기, 신문팔이, 신접살이, 실감기, 실뜨기, 썰매타기, 씨받이, 아갈(구멍, 입)잡이, 알내기, 알넣기, 알뜯기, 알뜯이, 알배기, 앞가림, 양수걸이, 양치기, 양콩잡이(바둑), 얼음지치기, 얼음타기, 옷걸이, 원반던지기, 윤석받이, 이삭줍기, 이슬받이, 이슬털이, 이얹이, 입가심, 자리바꿈, 잔돌리기, 장구잡이, 장담그기, 장보기, 재떨이, 젓떼기, 젓먹이, 젓얹이, 재살짜기, 조바꿈, 조움길, 종이접기, 줄건기, 줄넘기, 줄달음, 줄잡이, 줄타기, 죄값음, 주머니떨이, 주먹치기, 쥐불놀이, 쥐잡기, 줍내기, 짐받이, 짐살이, 짐뒤짐, 짐알이, 짐짓기, 짹짹, 쪽매붙임, 창잡이, 책꽃이, 책상물림, 책씻이(책거리), 총잡이, 칼부림, 칼잡이, 큰상물림, 키잡이, 탈바꿈, 털갈이, 파도타기, 파절이, 팔걸이, 팔놀림, 풀베기, 품팔이, 하루거리(하루씩 걸르다), 해바라기, 허리꺾기, 허리잡이, 허리죄기, 허리후리기, 허벅다리걸기, 헌집고치기, 홍수막이, 훗배얹이, 활개꺾이, 활개펴기, 활잡이, 햇불잡이, 휘잡치기, 흙받기 (239)

2. 장소1

가슴걸이, 객지살이, 겉붙이기, 결방살이, 고을살이, 국말이, 귀걸이, 남의집살이, 단칸살이, 목걸이, 밑받침, 발걸이, 발매기, 산돌림(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내리는 소나기), 세상살이, 셋방살이, 옆차기(돈주머니), 오막살이, (감)옥살이, 외방살이, 장돌림, 처가살이, 친정살이, 코걸이, 타향(타관)살이 (25)

3. 출발점

발걸이, 빠뜰이(소의 뼈에서 뜯어낸 매우 질긴 고기), 산내림(산에서 벤 나무를 끌어내림), 산떨음, 키내림(키에서 곡식을) (5)

4. 도달점

사색벼름, 제구멍박이, 집들이 (3)

5. 대 상

가슴쓰리기, 걸보임, 귀박이술, 돈점박이(돈짜만한 점이 박힌 말), 벼락치기, 별박이(이마에 흰 점이 박힌 말), 배고픔, 사람됨, 사탕발림, 산울림, 살걸음, 움돋이, 외눈박이, 잔손불림, 점박이, 피돌기, 해넘이, 해돋이 (18)

6. 행위자

까막(까막눈)잡이, 술래잡기, 용오름(바다에서 생기는 회오리 바람) (3)

II. 행위 관련 참여자

1. 시 간

가을잡이, 가을걷이, 가을뿌림, 가을심기, 겨우살이, 겨울불임, 구년묵이, 돌잡이(첫돌 때 무엇을 집는 유아), 뒤풀이, 봄잡이, 여러해살이, 여름날이(여름에 짠 옷감), 하루살이, 하루잡이, 한해살이 (15)

2. 자 격

농군살이, 드난살이, 머슴살이, 종살이, 첩살이 (5)

3. 도구/재료

명석말이, 뭍싸움, 못걸이, 물가꾸기, 발등걸이(발등으로), 살잡이(집을 살대로 버티어 세움), 소금절이, 소꿉살이, 손보기, 손잡이, 송곳치기, 왼손잡이, 은촉불임, 이마받이, 주먹다짐, 주먹다툼, 천둥지기(빛물에 의해서만 경작할 수 있는 논), 흙매움 (18)

4. 장소 2

개구명받이, 걸뜨기, 걸발림, 걸보기, 널뛰기, 논매기, 뒤지르기, 사방치기(돌치기 놀이), 사이짓기(두 작물 사이에), 산디놀음(임시무대), 소반다듬이, 안뜨기, 앞잡이, 앞차기, 옆차기, 중간따기, 중간치기, 턱받이 (18)

5. 양 태

가위막기, 물구나무서기, 반달썰기, 반달차기, 범서기(범처럼), 벼락닫이(갑작스럽게), 뺑뺑이, 샷자리깔음(샷자리 모양으로) (8)

6. 방 식

곱박이, 곱살이, 곱새치기, 곱세김, 그루잡이(이모작), 대값음, 두벌잡이, 두벌깎기, 두벌물기, 두벌숙음, 반닫이(장), 애벌잡이, 어림썰, 어림재기 (14)

7. 단 위

달(12달)불이, 달(12달)풀이, 말잡이(곡식을 될 때에 마되질 하는 사람), 자풀이(옷감을 자로 끊어서 파는 것), 죽치기, 줄뿌림, X자 돌림 (7)

8. 관련성

고생살이, 귀양살이, 돈팔이(학문 등을 돈벌이로만 함), 돈풀이(통화가치에 대한 풀이), 말놀음(말타기하며 놀기), 무살이, 벼슬살이, 삿메기, 삿팔이, 성주풀이(집의 신), 작은모쌓기(벽들의 작은모가 건물의 표면이 되도록 쌓는 일), 제석풀이(제석신), 차치기(차에 탄 채 소매치기), 피난살이, 화문쌓기(벽돌로 꽃무늬를 그려서 쌓는 일) (15)

■ Abstract

A Test for Argumenthood : Verbal Compounds in Korean

Ki-Sun Hong

A Test for Argumenthood:
Verbal Compounds in Korean

Ki-Sun Hong

The head of a verbal compound is derived from a verb by affixation and its non-head element is interpreted as an argument of the head or a closely related adjunct. Within the framework of Argument Structure Theory,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on whether the verbal compound can be a test for argumenthood. Grimshaw(1990) has specifically proposed that this construction provides supporting evidence for the hierarchy of fine-grained thematic roles.

In this paper, I attempt to figure out which elements can be the non-heads of verbal compounds in Korean by analyzing about 400 compounds in terms of thematic roles. Unlike the previous claims based on English data, the result shows that the fine-grained thematic hierarchy is not observed and that a prominent distinction exists only between the Agent and all the other thematic roles. Furthermore, we cannot find an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rguments and adjuncts in being incorporated as a non-head. Based on this empirical evidence, I argue that verbal compounds cannot be a test for argumenthood in Korean.

